

병무청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 ‘2026 대한민국 공공 홍보(PR)대상’ 대상 수상 -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 중심의 국민 공감·참여형 캠페인 전개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추진한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세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홍보학회는 공공 영역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우수 PR 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공공PR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년들을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주인공으로 재조명하고, 「오늘도 이겨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 오늘도 이행」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먼저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와 유튜브,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확산하고, 유튜브에서는 영상 감상 댓글 이벤트,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의 병역이행 사진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시작된 캠페인을 국민의 일상과 현장으로도 확장했다. 캠페인 메시지가 삽입된 컵홀더와 미니 배너를 제작해 전국 76개 나라사랑 가게에 배포하고,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청년들에게 음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수상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캠페인의 취지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 주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윤상만 (042-481-2701)
		담당자	사무관	배성국 (042-481-2703)

